나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궁금증 푼다

시·전남도, 14일 시민회관서 설명회 개최…시민 질의응답도
SNS서 제기된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존치·철거 여부 등 설명

나주시와 전남도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주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나주시민회관에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설명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경위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 박물관 건립 연계사업 설명에 이어 참석한 시민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 건립부지에 속해 있는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기된 주요 관심·의문 사항을 사실에 기반해 명확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영상테마파크를 제안한 이유,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철거 관련 시민 공론화 과정,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현황과 실태, 영상테마파크 고구려궁 존치·철거 여부,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 시유지 기부채납 등을 설명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박물관 연계사업인 '남도의병 역사 숲', '다야뜰 친수공간 조성', '다야뜰-박물관 연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산-다시 간 지방도 연결 교량 개설' 등도 소개한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남도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남도 역점사업으로 나주시는 박물관 공모 당시 도내 지자체 8곳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 지난 2020년 7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박물관은 오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영상테마파크가 위치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 36만3686㎡(11만평), 연면적 6884㎡ 규모로 건립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열린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의향 나주에서 남도 의병 정신을 계승하는 박물관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남도의병박물관 조감도. 〈나주시 제공〉

장인이 '한땀한땀'…5대째 이어온 함평 왕골돗자리

함평에서 농민들이 왕골돗자리 재료인 완초를 수확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정일범 씨 전국 유일 완초 장인…인력 부족에 전통계승 우려

함평에서 5대째 왕골돗자리 생산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월야면 정일범(73)씨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완초 장인으로 5대째 왕골돗자리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 왕골돗자리는 유명 백화점 납품은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에서 사용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

왕골돗자리의 주재료인 완초는 수입산 완초에 비해 올이 고르고 광택이 나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전국에서 유명하다.

완초는 재배 직후 껍질을 벗겨내고 일정한 크기로 잘게 쪼개 말리는 작업 등 왕골돗자리 한단을 완성하기 위해 세심하게 하나하나 사람 손을 타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왕골돗자리 제조 인원이 줄어 정씨를 비롯한 완초 재배 농민들은 전통계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함평군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말 60ha에 160t의 완초를 생산한 데 비해 2022년에는 1.6ha 1t 생산에 그쳤다.

함평군은 2008년부터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사업량(2ha)을 확보해 재배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나판종 함평군 농업정책실장은 "함평군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잇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 백양사역 앞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전남 첫 '키즈레일 어린이집 조성 공모' 선정…2025년 준공

장성 북이면 백양사역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건립된다.

장성군은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한 '키즈레일 어린이집 조성사업 공모'에 전남 최초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에 어린이집 4곳을 개원했다.

현재 2곳을 추가 건립 중이며 장성 백양사역은 일곱 번째다.

백양사역이 위치한 북이면은 3개 면의 보육을 담당하던 민간 어린이집이 지난 3월 폐원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컸다.

해결책을 모색하던 장성군은 지난 4월 국가철도공단 공모를 신청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건립되는 곳은 백양사역 인근의 연면적 300㎡(90평) 부지로,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자재로 건립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총 30억원 가량이며 장성군이 약 4%를 부담한다.

장성군은 조만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50%를 비롯해 유아반교사 인건비 20%를 지원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건립이 북부권의 시급한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부모와 지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하반기 화순 계절근로자 27명 입국

5개월간 농업 현장 투입

화순군 농업 현장에서 일할 필리핀 계절근로자 27명이 지난 8일 입국했다. 〈사진〉

지난 5월 화순군과 필리핀은 계절근로자 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계절근로자 비자(E-8)에 따라 5개월간 화순군에 거주하며 농촌 일손에 큰 보탬이 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날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재동 팀장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7개 농가 13명이었다. 이 가운데 8명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7조에 따라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일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계절근로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 필리핀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가 지속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로컬푸드' 공급 통한 상생

나주농업진흥재단-중흥골드레이크CC, 농특산물 활용 협약

이웅범(오른쪽) 나주농업진흥재단 부이사장이 임대형 중흥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사장과 나주로컬푸드 농특산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농업흥재단 제공〉

나주시 나주농업진흥재단(이하'재단')이 최근 중흥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과 나주로컬푸드 농특산물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골드레이크CC 직원식당에 나주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골드레이크CC는 행사 기념품과 명절 선물 등으로 나주로컬푸드 농특산물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매출은 연간 3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며, 단일 기관 최대 규모다.

이번 협약으로 재단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기관 단체는 지난해 21개소에서 50개소로 늘어났다.

임대형 중흥골드레이크CC 대표는 "골드레이크CC는 오랫동안 지역 상생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웅범 재단 부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상생과 협력의 경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이영민 원장 '화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위촉

화순소방서가 구급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을 소방서 구급지도의사로 위촉했다.

지난 8일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후 구급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구급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구급지도의사 제도는 병원 도착 전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 구급대원의 현장활동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구급 지도의사는 ▲구급활동 품질관리 ▲응급의료장비, 응급처치 약품 등 교육 자문 ▲구급대원 감염관리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과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자문 등을 맡는다.

최형호 화순소방서장은 "구급 현장과 이송 단계에서 응급처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서와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다"며 "구급지도의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호(오른쪽) 화순소방서장이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에게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소방서 제공〉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 고령층 우울증 주치의 '닥터 프렌드'

군 '찾아가는 마음건강' 운영…위험군 선별해 상담·교육

담양군이 고령 주민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마음건강 주치의-닥터 프렌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음건강 주치의는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시형 원장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 주치의는 고령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을 선별해 상담과 교육 등을 펼친다.

주치의는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간다. 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면별 보건지소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음건강 주치의 활동을 한다.

강진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해왔다.

마음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 학교는 담양군 정신건강증진센터(061-380-2767)에 신청할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